



APEC/PECC KOREA NEWSLETTER



한국APEC연구컨소시엄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우.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TEL : 3460-1031 FAX : 3460-1133
APEC 문의 : kslim@kiep.go.kr | KOPEC 문의 : kopec@kiep.go.kr

■ 발행인 : 채 욱 ■ 편집인 : 정 철

Vol. 15. No. 3. 2012년 9월

2012 APEC 정상선언 주요 내용

▶ 무역투자자유화와 지역경제통합

WTO 정보기술협정의 상품범위와 멤버십 확대, APEC 지역무역협정 투명성 모델챕터 승인, APEC 환경상품 리스트 승인과 2015년까지 실행관세율 5% 이하로 감축, ANSSR 이행에 관한 중간평가 실시

▶ 식량안보 강화

책임 있는 농업투자원칙에 대한 지속 논의 촉구, 농업부문의 R&D 투자 증대와 국내외 농업연구시스템 강화, 각국의 연구기관 및 혁신센터 간 교류 증진 등 혁신적 농업기술 도입·확산·활용, 아태식량안보 정보 플랫폼과 G20 차원의 농산물시장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협력 촉구, 식량안보 정책파트너십 설립

▶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새로운 공급루트와 예비 공급루트 마련과 통관절차 간소화, 지능형 공급망 구축과 공급망 가시성 제고를 위한 공급망 기술 강화, 조기경보시스템 공동표준 마련, 역내재난관리센터와 'ASEAN 재난관리'에 대한 인도적 지원센터와의 협력 지지

▶ 혁신성장 육성을 위한 심층 협력

민·관·학이 참여하는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 및 혁신 관련 유망기술을 논의하는 혁신기술대화 설립, 2013년 인도네시아 최고과학자문회의 개최, 학생·연구원·교육공급자의 이동성 확대, 지속가능한 인적자원개발 촉진

20th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제20차 APEC 정상회의 주요 논의 결과 (2012. 9. 8~9,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2012년 APEC 정상회의가 9월 8~9일 양일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2012년 APEC 정상회의에서는 “성장을 위한 통합, 번영을 위한 혁신(Integrate to Grow, Innovate to Prosper)”이 제시되었다. 정상들은 일부 선진국들의 재정적자와 유로존 위기 상황에서 금융안정성 강화와 내수 촉진, 일자리 창출, 부채 감축, 구조개혁 단행 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노력과 맥락을 같이하는 로스카보스 G20 정상회의의 결과를 지지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화롭고 조율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었으며, 혁신성장과 에너지안보, 국경간 교육협력, 부패척결과 투명성 보장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무역투자자유화와 지역경제통합

정상들은 2015년 말까지 상품서비스 무역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 도입을 자제하고 WTO 원칙에 어긋나는 조치를 억제할 것을 재결의하였다. 또한 WTO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의 상품범위와 멤버십을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정상들은 보고르 목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가 지역경제통합의 주요 기제(instrument)임을 다시 확인하면서 APEC이 인큐베이터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FTAAP 실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을 지시하였다. 향후 APEC 역내 교역 확대와 경제통합 및 FTAAP 실현을 위

해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를 발굴하도록 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정상들은 ‘APEC 지역무역협정 투명성 모델챕터(APEC Model Chapter on Transparency for RTAs/FTAs)’를 승인하였다. 지역경제통합 강화뿐만 아니라 상품 안전성과 공급망 통합, 환경보호 보장을 위한 규제수렴 및 조화를 통해 자유로운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조하였다. 역내 인프라 개발에서 민간투자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면서 폭넓은 민관협력사업의 추진을 촉구하였다.

반면,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APEC 환경상품리스트가 승인되어 2015년까지 해당 품목의 실행관세율을 5% 이하로 감축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APEC 환경상품리스트가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조치로 이용되지 않고 국제무역규범에 일치하도록 할 것을 결의하였다. 지속가능 경제성장에서 천연자원과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위협하는 불법 거래 및 무역을 척결하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정보통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경간 안전한 정보교환을 통해 국제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전자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였다. 에너지효율성 제고와 청정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APEC 에너지안보 논의를 강화하기로 결의하였다. 정상들은 2010년에 승인된 APEC ‘신(新)구조개혁전략(ANSSR)’ 진전을 환영하고, 2013년에 ANSSR 이행에 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력과 역량 강화 등 구조개혁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하였다.



식량안보 강화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생산량과 생산성 증대, 무역촉진과 식량시장 개발, 식품 안전과 품질 강화, 사회 취약계층의 식량접근성 제고 등을 결의하였다. 지속가능한 농업 성장에 필수적인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민관파트너십을 확대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증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책임 있는 농업투자원칙(PRAI: Principles for Responsible Agricultural Investment)’에 주목하고, 관련 모범사례 발굴을 위해 다른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를 환영하였다. 농업부문의 R&D 투자 증대와 국내외 농업연구시스템 강화, 각국의 연구기관 및 혁신센터 간 교류 증진 등 혁신농업기술을 도입하고 확산, 활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식량수출제한이 식량가격변동성을 야기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농산물 무역체제의 개방성과 안정성, 예측가능성, 투명성 증대를 위해 보호주의 반대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태평양 식량안보 정보플랫폼(APIP: Asia Pacific Food Security Information Platform)’ 구축을 환영하고, G20 차원의 ‘농산물 시장정보시스템(AMIS: 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과의 협력을 추구하도록 하였다. 식량시장 인프라를 개발하고 식량 공급망 연결을 통해 수확 후 손실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내 식품안전규제시스템과 국제표준의 조화를 지시하였다. 민간부문의 참여확대가 중요함을 인지하면서 2012년 ‘식량안보 정책파트너십(PFFS: Policy

Partnership on Food Security)’의 설립과 제 1차 회의 개최를 환영하였다.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2015년까지 역내 공급망 10% 개선의 목표 달성 공약을 재확인하고 공급망 병목요인을 해소할 맞춤형 역량강화 등 ‘보다 체계적인 접근방식’의 채택을 환영하였다. 새로운 공급 루트와 예비 공급루트를 마련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였다. 지능형 공급망을 구축하고 공급망 가시성을 제고할 공급망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위치추적기술 활용을 확대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위험물질 운송관리를 개선하는 등 공급망 가시화에 대한 논의결과를 지지하였다. 글로벌 공급망 연결을 촉진할 서비스자유화와 혁신 논의를 지지하였다. ‘APEC 대테러 및 안전무역에 대한 통합전략(APEC Consolidated Counter-Terrorism and Secure Trade Strategy)’의 이행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복원력이 강한 역내 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 전략의 우선분야인 안전한 무역·여행·금융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역량강화와 협력강화를 지지하였다.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역내 여행 및 관광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APEC 관광장관회의의 주요 추진사항인 해외여행 원활화, 항공운송서비스 자유화, 여행객 수하물 안전 개선 등을 지지하였다. 재난대응과 재난 복원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다음의 노력을 지지하였다.

- 민관파트너십 육성
- ‘국경간 운송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공통 표준(common standards for emergency early warning systems in cross-border transportation)’ 구축
- APEC 무역복원프로그램(Trade Recovery Program)에 입각한 ‘무역복원소통 메커니즘(operational trade recovery communications mechanism)’ 개발 추진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ASEAN 재난관리에 대한 인도적 지원센터(ASEAN Coordinating Centre for Humanitarian Assistance on Disaster Management)’ 등 역내 ‘재난관리 센터(CMCs: Crisis Management Centers)’ 간 협력 증진

마지막으로 ‘재난리스크관리(Disaster Risk Management)’ 전략개발을 통한 재난 복원력 강화를 강조하였고, 자연재해에 대한 금융당국의 실행 가이드라인 개발 노력을 환영하였다.



혁신성장 육성을 위한 협력 강화

2012년에는 ‘효과적이고 비차별적이며 시장주도적인 혁신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주목하였다. 민·관·학이 참여하는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PPSTI: Policy Partnership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을 통해 공통의 과제를 파악하고 혁신역량을 증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혁신 관련 유망기술에 대한 논의 기구로 혁신기술대화(Innovation Technology Dialogues)를 설치하고, APEC 회원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부상하는 혁신기술과 관련 정책 및 도구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과학과 혁신의 연계를 촉진하는 ‘최고과학자문관(Chief Science Advisor)’ 회의를 2013년에 공동 개최하기로 한 인도네시아와 뉴질랜드의 제안을 환영하였다. 아태지역 혁신발전의 주요 동력인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국제화와 수출지향 중소기업 지원, 시장과 금융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성 강화 등을 통해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기업환경을 구축할 것을 결의하였다. 창업과 청년기업가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청년기업가 네트워크(YEN)’와 ‘APEC 창업 가속화구상(ASA)’ 이행을 지지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호협력 촉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교육은 역내 혁신성장의 주요 원동력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회원국들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지지하였다. 회원국간 교육협력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연구원·교육공급자의 이동성을 확대하는 등 역내 고등교육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하였다.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장려하기 위한 투자와 역내 보건시스템 강화 등 역내 지속가능한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역내 포괄적 성장과 경제 번영을 위해 여성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여성과 경제포럼’의 성과를 환영하고

여성의 경제적 참여에 장애가 되는 장벽들을 제거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향후 과제

2012년 APEC 활동들이 사회통합과 혁신기반 경제성장을 통해 역내 번영 달성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였다. 효과적인 경제기술협력에 대한 결의를 재확인하고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위해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와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저성장과 금융 불안정성의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A P E C

최근 행사

24th APEC Ministerial Meeting 제24차 APEC 합동각료회의 (2012. 9. 5~6.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2012년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인 ‘투명성 관련 FTA 표준챕터’를 승인하고 2011년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 이행 노력을 지지하였다.

1. 무역투자자유화와 지역경제통합

다자무역체제 강화와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

이번 회의에서 각료들은 DDA 협상 진전을 위해 보다 새롭고 신뢰할 만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을 지시하였다. 2015년 말까지 보호무역주의 조치의 신규도입을 자제하자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하고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대한 WTO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WTO 정보기술협정(ITA)의 범위와 회원국 확대에 대한 협상을 조속히 타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을 지지하였다.

서비스무역 자유화와 원활화

APEC 지역의 서비스무역을 원활하게 하는 기업친화적 도구(business-friendly tool)인 APEC 서비스무역 접근요건(STAR: Services Trade Access Requirements) 데이터베이스의 확대를 환영하였다. ‘국내/역내 부품 사용 요건(local content requirement)’의 지역통합과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을 2013년 중에 검토하도록 하였다. 서비스분야의 무역통계 관련 실행계획(Action Plan on Statistics on Trade in Services)과 APEC 서비스 시장접근요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확대를 환영하였다.

투자 원활화

APEC ‘투자 원활화 실행계획(IFAP)’에서 투자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투자 규제관련 투명성 증진을 통한 역내투자 증진 노력을 촉구하였다. 또한 투자분쟁 예방과 신속한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 강화 조치를 모색할 것을 지시하였다.

규제수렴과 협력

불필요한 무역장벽 제거를 위해 규제 관련 협력을 확대하고 모범적인 규제관행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2013년에 예정된 모범 규제관행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분야의 지속적인 능력배양사업과 정보공유 활동을 지시하였다.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투자와 녹색건물의 에너지 효율 강화, 태양열 기술 관련 작업에 대한 규제의 개혁적 접근방안을 환영하였다. 의약품 공급망의 품질과 완결성,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로드맵 개발과 이행을 환영하였다. APEC 회원국들이 주요 금속 생산자이면서 소비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세계 및 역내 화학제품관리의 특성을 역내 및 역외국과의 대화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금속 관련 법·규정의 투명성 증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화학제품의 분류 및 상표 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for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의 이행 작업을 환영하였다.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국경간 개인정보규정 이행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전자무역환경 조성

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ITA 확대 협상과 관련하여 업계 입장을 타진하는 ICT 분야 관계자대화를 지지하였다. 2011년 APEC 정상회의 합의 사항인 ‘국경간 개인정보보호 규정(CBPR: Cross Border Privacy Rules)’의 전면이행을 촉구하였다.

환경상품 무역과 녹색성장 촉진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APEC 환경상품 리스트에 대한 합의를 환영하고, 정상들에게 이 리스트의 승인과 2015년까지 실행관세율을 5% 이하로 감축하기로 한 공약을 재확인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APEC 회원국들이 녹색성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는 데 있어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의 향후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회원국들의 재제조상품(remanufactured)의 무역 원활화 노력을 환영하고, 이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조치 목록 수집을 독려했다. 추진 중인 역량강화 워크숍과 재제조에 대한 자료 및 교재의 개발을 통해 회원국들이 ‘재제조상품 교역원활화 선구자(Pathfinder on Facilitating Trade in Remanufactured Goods)’ 이니셔티브에 동참할 것을 기대하였다. 무역과 환경정책 간 상호연관성을 높이기 위해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조치 및 요건에 대한 국제표준, 투명성, 정보교환을 촉구하였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지속가능한 물 이용, 이동성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녹색성장의 중요성에 주목하였고, 산림보전의 중요성과 불법 벌목 및 관련 교역 방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의 이슈를 다룬 점

을 치하하였다.

에너지안보 강화

에너지안보 강화 측면에서 개방적 에너지 무역시장과 투명한 투자제도(investment regime)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화석연료와 천연가스, 원자력 에너지 등 다양한 역내 에너지 믹스가 역내 에너지안보와 저탄소,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비효율적인 화석연료보조금의 단계적 철폐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금융지식 개선과 구조개혁이슈 촉진

역내금융의 안전성과 포용적 성장, 개인의 복지를 위한 금융 활용능력을 증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OECD/INFE 학교에서의 금융·재무 교육 지침(OECD/INFE Guidelines for Financial Education in Schools)'의 활용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회원국들의 2015년 '국제학생평가를 위한 경제지식능력 측정 프로그램(Financial Literacy Measurement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s Assessments, PISA)' 참여를 독려하였다. 2013년 'APEC 신(新)구조개혁전략(ANSSR)' 이행에 관한 중간평가를 2013년에 실시하도록 하고, 현재까지의 추가 진전사항을 환영하였다.

2. 식량안보 강화

APEC 식량안보에 대한 카잔 선언문 이행

식량안보에 대한 '카잔 선언문'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각료들은 식량시장의 개방성과

투명성 촉진, 전 세계적인 식량 환경의 다양성과 식량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고려한 공동 연구개발 수행, 식품안전 및 품질 강화, 농업 생산량 및 생산성 증대, 무역촉진 및 식량시장 개발, 사회적 취약계층의 식량접근성 제고,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관리 및 불법어업과 관련 무역 적결 목표를 결의하였다. 식량 수출규제가 가격변동성을 야기함을 인식하여 APEC 정상들의 보호주의 반대 결의를 재확인하면서 세계식량프로그램(WFP: World Food Program)에 따라 비상업적·인도적 목적의 식량구입에 대한 제한이나 과도한 세금 부과를 철폐할 것을 다시 결의하였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 정책파트너십

지속가능한 농업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농업투자 확대 및 혁신 농업기술 도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공 및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할 것과 책임 있는 농업투자 원칙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지지하였다. 2020년까지 역내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식량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식량안보정책파트너십(PPFS)'의 장기목표를 환영하고 로드맵을 통한 2012~13년 활동계획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농업기술협력과 역량강화, 역량강화를 통한 식품안전성 증진과 규제에 대한 협력 촉구

농업기술 협력이 농업 생산 증대, 농업기술의 역량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시장을 통한 자발적 선진 농업기술의 확산, 지속가능한 환경과 천연자원관리 강화, 식량안보 관련인프라 구축, 농업정보시스

템의 개선을 지지하였다. 재난대응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식품안전협력포럼(FSCF: Food Safety Cooperation Forum)이 개설한 식품안전 규제자와 파트너십 훈련기관 네트워크(PTIN: Partnership Training Institute Network)를 환영하였다. 민관협력을 통한 예방적 조치와 역량강화를 촉구하였으며, 능력 배양을 통해 식품안전을 강화하고 규제협력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식량안보를 위한 혁신 바이오기술 활용

혁신적 농생명 공학기술의 개발 및 응용에 필요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투명한 규제시스템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한 활동을 환영하였다.

식량안보정책 연구와 정보플랫폼,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및 어업·양식 관리 지지

APEC 내 식량안보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책 환경과 수요, 우선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정책지원단(PSU: Policy Support Unit)이 실시한 식량안보정책에 관한 연구결과를 주목하였다. ‘아태 식량안보 정보플랫폼(APIP)’ 개설을 환영하고 G20의 농업시장 정보시스템(AMIS)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고, 효과적인 정보시스템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정보제공을 촉구하였다.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와 어업·양식관리를 위한 이니셔티브 이행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였다.

3. 안정적 공급망 구축

공급망 연결 이행과 통관절차 개선

공급망 연결 실행계획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망 안정성과 성과제고를 위한 사업, 공급망 가시성 촉진과 공급망 연결 실행계획의 이행을 위한 각종 역량강화사업을 환영하였다. 통관절차 소위원회(SCCP)의 De-minimis 역량 강화사업, 단일통관창구 개발연구, 회원국들의 단일통관창구의 ‘상호운영성(interoperability)’ 개선 등의 활동을 환영하였다.

공급망 안정성 개선

공급망 안정성 개선을 위한 교통실무그룹의 공급망 강화에 대한 논의결과를 환영하였고, 특히 공급루트 다변화의 지속적 모색,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 첨단기술 활용, 재난 방지·관리를 위한 협력 강화 등에 대한 교통장관회의의 특별세션 권고문을 지지하였다.

안전한 국경간 무역과 여행, 재난복원력 강화

안전한 국경간 이동과 재난복원력 강화 측면에서는 운송, 여행, 금융, 인프라 등 관련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공약과 대테러 방지 및 무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테러특별그룹(CTTF: Counter-Terrorism Task Force)의 역량강화사업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APEC 대테러 및 안전 무역에 관한 통합전략(APEC Consolidated Counter-Terrorism and Secure Trade Strategy)’의 첫 번째 연간 보고서를 환영하였다. 또한 APEC 여행원활화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 간 협력을 환영하였고, APEC 여행객 안전 확보 지침

을 승인하고, 위기대응 및 재난복원력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4. 혁신적 성장 촉진을 위한 협력 강화

혁신협력과 기업의 역할

혁신협력과 기업의 역할 강화를 위해 혁신 기술의 개발 · 전파 · 상업화 과정에 관계된 모든 혁신 주체들 간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산업과학기술실무그룹(ISTWG)이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정책파트너십(PPSTI: Policy Partnership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으로 전환된 점을 환영하였다. 지난 5월 카잔에서 개최된 에너지 효율성 관련 나노기술에 관한 ‘혁신기술 대화’의 결과를 평가하였다.

지식재산권과 혁신적이며 수출지향적인 SMMEs 육성, 창업지원 및 청년기업가 지원

지식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대한 교육시스템의 개발과 이들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IPR 교육훈련 활동에서의 협력을 촉구하였다. 중소 · 중소기업(SMMEs: Small-, Medium-, Micro-sized Enterprises)의 혁신 촉진을 위해 혁신에 관한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노력을 환영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투자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을 환영하였다. 청년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제1차 청년기업가 네트워크(YEN) 결과를 승인하였다.

교육협력과 네트워킹, 혁신경제에서 여성의 역할

제5차 교육장관회의의 결과를 환영하고 교육협력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교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상호인정과 교육기관 간 상호교류 · 정보교류와 학생 · 연구원 · 교육공급자들의 이동성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지난 6월에 개최된 여성과 경제포럼의 개최 결과를 환영하고, 여성의 경제적 참여를 진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인적자원 투자와 개발, 경제성장

인적자원의 건강과 투자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보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비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보건과 경제에 관한 APEC 고위급 회의’ 결과를 환영하였다. 모성과 아이들의 건강한 삶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함에 있어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의 주요 역할을 강조하였다. 우호적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고용과 사회보호정책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를 위한 지속적인 능력배양작업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향후 행사

2013 APEC ISOM

2013 APEC 비공식 고위관리회의

(2012. 12. 6~7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연락처: 외교통상부 경제공동체과

Tel: 02-2100-7653

APEC SOM I and Related Meeting

제1차 APEC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 회의

(2013. 1. 24~2. 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연락처: 외교통상부 경제공동체과

Tel: 02-2100-7653

APEC SOM II and Related Meeting

제2차 APEC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 회의

(2013. 4. 6~19 인도네시아 자와섬)

연락처 : 외교통상부 경제공동체과

Tel: 02-2100-7653

APEC SOM III and Related Meeting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 회의

(2013. 6. 22~7. 6 인도네시아 메단)

연락처: 외교통상부 경제공동체과

Tel: 02-2100-7653

21th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제21차 APEC 정상회의

(2012. 10. 1~8 인도네시아 발리)

연락처: 외교통상부 경제공동체과

Tel: 02-2100-7653



P E C C

최근 동향

대만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CTPECC: Chinese Taipei committee for PECC)의 신임 회장이 취임하였다. 제프리 LS 구(Jeffrey L. S. Koo) 박사의 뒤를 이어 데이비드 홍(David Hong) 박사가 CTPECC를 맡게 되었다. 데이비드 홍 박사는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창립 멤버이며 지난 30년간 PECC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에 기여해 왔다. 현재 TIER (Taiw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의 원장을 맡고 있다.

최근 행사

JANCPEC PEO Structure Subcommittee Meeting

(2012. 9. 21~22 일본 오사카)

2012년 제1차 태평양경제전망 PEO(Pacific Economic Outlook) 분과위원회의 제2차 회의가 9월 21~22일 일본 PEO 주재하에 오사카에서 열렸다. 지난 1차 회의는 3월 17~18일 오사카에서 열렸으며, 당시 논의되었던 주요 내용은 세계 금융위기가 국내금융시스템 및 거시경제 발달에 미친 영향과 역내 금융협력의 강화 방안 등이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은 금융 및 안보 분야에서 크고 작은 위기를 경험하였다. 3월 회의와 마찬가지로 동 회의의 일차적인 목표는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별 금융 구조의 회복력 수준 점검이다.

지난 1차 회의에 한국 측 대표 전문가로 허인 KIEP 국제금융팀장이 참석하였으며, 이번

2차 회의에도 허인 국제금융팀장이 한국 측 대표로 참석하였다. 2차 회의에는 한국, 대만, 일본,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중국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허인 국제금융팀장은 ‘Korea and Chinese Taipei’라는 네 번째 세션에서 “The Effectiveness of Macro-Prudential Measures on Debt Investments in Korea”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회의 전반에 걸쳐 각국별 금융위기 대응 정책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화정책의 독립성, 환율 안정과 자본 이동성의 관점에서 각국별 통화정책 구조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논하였으며, 역내 효과적인 금융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태지역연례현황보고서(SOTR) Press Release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는 9월 5일 APEC 정상회의 및 관련 회의가 개최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아태지역 경제정치현황을 평가하는 아태지역 연례 현황 보고서(SOTR Report)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다수가 지난해에 비해 내년의 경제성장 전망에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아태지역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2011년보다 높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경기회복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이다. 이번 설문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회복세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단기간 내 회복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은 유로존 위기의 영향과 미국 경기회복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신흥국가들의 성장률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12년도 APEC 정상회의에서 논의해야 할 의제로 TPP, ASEAN+3 등과 같은 지역경제협력체를 1순위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유로존 위기에 대한 아태지역의 대응, 그 다음으로는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협력을 선택하였다.

이번 설문 결과에서 흥미로운 것은 FTAAP을 실현해 나감에 있어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분야의 무역장벽 최소화 초점을 두고 있는 한편, TPP 가입국들은 서비스 무역, 투자 및 지적 재산권 문제 등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설문에 응한 오피니언 리더들의 5분의 1, 즉 20%는 RCEP을 평가하기엔 정보가 부족해서 ‘잘 알 수 없다’고 답하였고, CEPEA의 경우 16%의 응답자가 동일하게 응답하였다. 이는 RCEP, CEPEA의 고위급 회담이 실질적으로 부족하며 국가들 간에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설문 응답자들은 ASEAN+X, EAFTA, CEPEA, RCEP뿐만 아니라 TPP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적지 않게 존재한다고 답하였다. 현재 13번째 협상이 진행 중인 TPP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34%만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PECC는 지역경제의 포괄력을 키우고 지식 기반 국가로서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교

육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APEC 정상들의 견해에 뜻을 같이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지역 교육 시스템이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외적으로 교육환경의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데 APEC이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APEC 성장 어젠다 중 하나로 사회적 측면에서의 회복력 증진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고, 식량안보 문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다.

PECC의 아태경제통합지수로 살펴볼 때, 국가간 소득불평등 현상은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이 이러한 문제해결의 한 가지 방안이 될 수는 있지만, APEC 차원에서 이를 지역경제통합 어젠다 중 하나로 포함시키는 문제는 기술적으로 기존과는 다른 접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향후 행사

CTPECC The 27th Pacific
Economic Community Seminar
(2012년 10월 중 대만)

K O P E C



최근 행사

KOPEC 아·태전략포럼 제2차 회의 (2012. 8. 28)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는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초청하여 ‘유로존 위기와 아태지역에서의 국제금융협력’을 주제로 2012년도 제2차 아태전략포럼을 지난 8월 28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채욱 KOPEC 회장은 ASEAN+3 재무장관 회의 이후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ABMI(Asia Bond Market Initiative) 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위안화의 국제화와 관련한 한국의 과제를 비롯하여 아태지역 금융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신제윤 제1차관은 그리스 긴축안 재협상 가능성, 스페인의 전면적인 국가 구제금융 우려 심화, 유로안정화기구(ESM) 출범 지연 등

이 유로존 주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제적인 금융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APEC에서의 금융협력에 한계는 있으나, 그 역할은 분명히 중요하다고 하였다. 아태금융포럼(Asia Pacific Finance Forum)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ASEAN+3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채널이 조성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우리나라를 위안화의 허브로 성장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질의응답 및 토론에서는 한국의 원화 국제화에 대한 의견들이 논의되었는데, 이에 관해 신제윤 제1차관은 원화 국제화를 시도한다면 우리나라는 외환 시장에서 효과적

인 통제 수단을 놓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유로나 엔화에 비해 위안화 국제화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우리나라와 전부터 교역량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로 및 엔화가 활용되지 않았던 이유로 유로는 물리적인 거리의 영향이 있고, 엔화는 우리나라에서 허브화할 여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반면, 위안화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액이 크고 한·중 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위안화 축적이 용이하며 따라서 축적된 위안화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ASEAN+3의 금융협력은 크게 CMIM과 ABMI로 구분할 수 있는데 CMIM은 수동적인 의미의 협력체이며, 능동적이며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ABMI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문제는 ABMI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협력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여타 제약이 적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끝으로 채욱 KOPEC 회장은 금번과는 또 다른 주제로 이어질 다음 회차의 아태전략포럼에도 높은 관심을 부탁하였으며, 더 많은 동아시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KOPEC 아·태전략포럼 제3차 회의 (2012년 12월 중 서울)

회의 관련 문의사항이나 자료는
KOPEC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OPEC 사무국
Tel: 02-3460-1240 Fax: 02-3460-1133
E-mail: kopec@kiep.go.kr



- APEC Economies: A paradigm shift? (2012)
- State of the Region 2012-2013
- Examining the Mid- and Long-Term Structural Unemployment in Asia-Pacific (2012)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Urban Centers, 2012
- Services Trade: Approaches for the 21st Century (2011)
- Towards a More Resilient Society: Lessons from Economic Crises (2011)
-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the Asia Pacific Region: Is an FTAAP the Catalyst for One Community? (2011)
- State of the Region Report, 2011-2012
- Growing APEC Economies: New Challenges and Approaches, 2011
- State of the Region Report, 2010
- Towards a More Resilient Society: Lessons from Economic Crises, 2010
- Infrastructure Projects in Thailand, Narongchai Akrasanee, 2010
- Public Private Partnerships Forum Report, Australian APEC Study Centre, 2010
- Workshop on Measures to Promote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Public Private Partnership, Australian APEC Study Centre, 2010
- The Globalisation of Education: The Next Wave, PECC & APRU, 2009
- Pacific Food System Outlook: Market Volatility and the Food System, Pacific Food System Outlook Project, 2009
- State of the Region Report, 2009
- Competition among Financial Centres in Asia-Pacific: Prospects, Benefits, Risks and Policy Challenges, KOPEC & ISEAS, 2009
- Competition among Financial Centres in Asia-Pacific: Prospects, Benefits, Risks and Policy Challenges: Synthesis Report, KOPEC, 2009
- State of the Region Report, 2008
- Labour Mobil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Dynamics, Issues and a New APEC Agenda, KOPEC & ISEAS, 2008
- Demographic Change and International Labor Mobil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 Implications for Business an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Synthesis Report, KOPEC, 2008
- State of the Region Report, 2007
- An APEC Trade Agenda: The Political Economy of a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PECC & ISEAS, 2007

- Guidelines for Effective Public Private Partnerships, 2007
- The Policy Environment for the Development of SMEs, 2007
- State of the Region Report, 2006
- The Evolution of PECC: The First 25 Years, 2005
- Towards a Pacific Community: Renewing the Commitment (proceedings of PECCXVI), 2005

- Finance

- Impediments to Cross-Border Investment in Asian Bonds, PECC & ISEAS, 2005

- Trade

- Study on the Mutually Supportive Advancement of APEC's Trade Facilitation and Secure Trade Goals post September 11, 2005
- Papers on World Trade and Investment in Memory of Bijit Bora, 2010

- Outlooks

- Pacific Economic Outlook Structure Project: Macrofinancial Linkages and Financial Deepening in the Pacific Region, 2011
- Pacific Economic Outlook: External Adjustments under Increasing Integration in the Pacific Region, 2009
- Pacific Food System Outlook 2008-2009: Climate Change and the Food System
- Pacific Food System Outlook 2007-2008: Linkages to Growing Urban Markets Spur Rural Development, 2007
- Pacific Food System Outlook 2005-2006: A Revolution in Food Retailing, 2005
- Pacific Economic Outlook 2005-06, 2005

PECC, KOPEC 회의 관련 자료 및 발간물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PEC 사무국 (곽소영 연구원) Tel: 02-3460-1240 Fax: 02-3460-1244 E-mail: kopec@kiep.go.kr